

일주문



전남발전 기원 신년 하례법회
조계종 광주전남 4교구본사 주지회
의 회장 몽산 스님은 1월 18일 오전 11시 무안 광주도청 김대중홀에서 전남발전
을 위한 신년 하례법회를 봉행한다.



간화선 입문 프로그램
봉은사 주지 명진 스님은 1월 16일부터
11주간 봉은사 수련내 내 연수원에서
'제2기 간화선 입문프로그램'을 운
영한다.(02)511-6070



교육부총리 표창 받아
부산 천불정사 주지 고담 스님은 1월
4일 부산에 대학생 기숙사를 기증한 공
로를 인정받아 교육부총리 표창을 받았
다.(051)583-9233



물산대복지관장 취임
서봉 스님이 1월 11일 물산대종합사회
복지관 관장에 취임했다. 그동안 부관
장을 맡았던 스님은 합천천정소년수련
관장을 역임했다.(051)264-9033



관장 취임 기념 무료대중공양
강북장애인종합복지관장 성산 스님
은 1월 11일 5대 관장에 취임한 것을 기
념해 지역 장애인 200여 명을 대상으로
무료대중공양을 열었다.(02)989-4215



청도 운문사 주지에
조계종 제11대 총회위원을 지낸 진성
스님이 청도 운문사 주지에 임명됐다.
진성 스님은 중앙선거관리위원을 역임
했다.(054)372-8800



남도대학 제2대 학장 취임
前 한국공무원봉사연합회 노옥성 회
장은 1월 9일 전남도립 남도대학 제2대
학장에 취임했다. 노 학장은 감사원 사
무총장과 감사위원 등을 역임했다.

운덕 스님 국민훈장 모란장 서훈

통일기반 조성 공로...춘광 스님 민주평통의장 표창

전태종 前 총무
원장 운덕 스님이
1월 9일 서울 타워
호텔에서 열린 국
민훈장 수여식에서
서훈을 받았다.



운덕 스님의 국
민훈장 모란장 서
훈은 전태종 총무
원장으로 재임하
면서 2005년 북한의 개성 영통사
를 성공적으로 복원했으며, 북한
돕기운동에 적극 동참해 통일기
반 형성에 이바지한 공로를 높이
평가받은 데 따른 것이다.

1월 9일 열린 국민훈장 수여식에서 전태종 前 총무원
장 운덕 스님(오른쪽)이 모란장을 서훈받고 있다.

한편 이날 전태종 감사원장 춘
광 스님도 민주평화통일자문회
의가 수여하는 '2006년도 의장
표창' 수상자로 선정돼 표창장을
받았다. 춘광 스님은 민주평통 자
문위원으로 국민회합과 남북 화
해 협력, 지역사회 통일기반 조성
노력이 인정됐다. 김원우 기자

법인 설립·서비스 강화
각종 봉사활동도 전개

대구운불련 서상준 회장 취임

"올해 안
에 법인체를
구성해 활동
범위를 넓히
고 운불련
호출 서비스
를 활성화시
켜 불자들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가는 대구운
불련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대구지역 개인택시 불자 운전
자 모임인 대구운불련(한국운
전기사불자연합회 대구지역회)
서상준(53·사진) 신임회장은 1
월 6일 취임법회에서 이 같은
포부를 밝혔다. 서 회장은 대구
운불련 복지부와 부회장을
역임했으며, 지난해 11월 총회
에서 3년 임기의 11대 회장에
당선됐다.

1월 6일 동화사 통일대전에서
열린 취임법회는 동화사 주지
허운 스님과 개인택시조합 도명
영 이사장, 조계종 대구시신도
회 장영관 회장을 비롯한 지역
불교 신현단체장 등 내·외빈과
회원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봉행됐다.

이날 법회에서 서 회장은 취
임사를 통해 "지금까지 대구운
불련이 봉사단체로서 많은
활동을 해왔지만 한계가 있었
다"며 "앞으로 법인체를 구성해
사회가 인정하는 범위에서 봉사
지원금도 일정부분 확보하고,
이를 통한 봉사활동범위도 보다
체계적으로 확대시켜나겠다"고
밝혔다.

또한 "기업체와 병원 등 지역
의 크고 작은 단체와 협력체를
맺어 운불련 호출을 활성화시키
는 세일즈맨이 될 것"이라고 다
짐했다. 배지선 객원기자

동국대 경주캠퍼스 부
총장을 역임
한 고복현(의
과대학 의학
과·사진) 교
수가 1월 6
일 금성위장관출혈로 별세했
다. 향년 61세. 영결식은 9일
동국대 경주캠퍼스 의학관에
서 거행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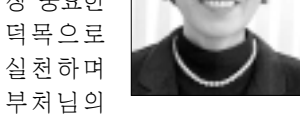
"내실 다지며 이웃에 자비 전할 터"

대한적십자불교봉사회 윤수분 신임회장

"대한적십자 불교봉사회가 행
하는 오늘의 선행들이 차곡차곡
쌓여 나와 어려운 이웃들의 희망
찬 내일을 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은 "앞으
로 회원들
상호간의
화합을 가
장 중요한
덕목으로
실천하며
부처님의
자비가 불우한
이웃들에게 더욱
가까이 더욱
깊숙하게 스며들도
록 할 것"이라며 활짝 웃었다.

1월 11일 대한적십자 부산지
사 회관에서 대한적십자 불교봉
사회 2대 회장으로 취임한 윤수
분(61·원산시·사진) 회장의 각
오다.



윤 회장은 대한적십자사에서
봉사를 시작한지 9년째다. 윤 회

친미희 기자



1월 10일 열린 국방대학교 법당 호국 성관사 개원법회에 200여명의 사부대
중이 동참했다.

당 개원을 시작으로 모든 군사참
봉사에 후원자와 시공자간의 적
극적인 연계를 통해 군포교를 활
성화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군불교총신도회는 1월
7일 미국 메릴랜드주 법주사주
지 허관에서 미주지역본부 창립
현판식을 봉행했다. 남동우 기자

국방大 호국성관사 10일 개원

주지에 토진 스님...허길량씨 불상 기증

국방대학교 법당 호국 성관사
(주지 토진·서울 수곡사 주지) 개
원법회가 군종특별교구 주지 일
면 스님, 성관사 주지 토진 스님,
육군 군종간 이종인 법사, 정동환
국방대학교 총장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1월 10일 서울 수
색동 소재 법당에서 봉행됐다.
이날 법회는 군종특별교구 출
범 이후 군법사가 아닌 지역사찰
주지스님을 법당 주지로 위촉한

뒤 처음으로 이뤄졌다는 점에서
눈길을 끌었다. 토진 스님은 불사
비용 2000만원 전액을 부담했다.
특히 이날 봉안된 석가모니부
처님 불상은 불모 허길량(대불공
불교미술관장)씨가 무주상보시
한 것이다. 허길량씨는 지난해
본사가 진행한 군불교 활성화 캠페
인에서 군법당에 불상을 기증
하기로 약속했다.
일면 스님은 "국방대학교 법

2007년을 뛰는 불자

김형남 변호사 前 조계종 법률책임전문위원

"불교계 권익 지키기
한 발 앞서 뛰어야죠"

2004년부터 2년 간 조계종 법률책
임전문위원을 맡아 불교 내외의 법률
문제를 다루면서 종단 권익과 발전에
기여했던 김형남(43) 변호사. 김 변호
사가 2월 6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서
'김형남 법률사무소'를 연다.



첫 출발은 누구에게나 기대 반 걱정
반이다. 김 변호사 역시 마찬가지다.
하지만 김 변호사는 굳게 믿는 것이 있
다. 바로 부처님이다.

"부처님 은혜를 입었으니 값야야.
종단은 물론이고 더 폭넓게 불교 일을
하기 위해 사무실을 여는 것이기 때문
에 부처님 품을 떠나는 것은 아닙니
다."

김 변호사는 문화재, 환경,
토지 보호 등 불교계의 권익
을 위해 할 일이 많다고 말한
다. 그리고 자신이 앞장서 그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물

론 불자들과 관련한 법률적 문제도 적
극적으로 맡을 계획이다. 더 나아가서
는 불자들이 구성된 로펌(법무법인) 또
는 종합법률회사를 구성해 불교 발전
에 기여하겠다는 구상도 하고 있다.

"불교인들은 다른 종교인들과는 달
리 법률문제에 소극적이지만 법률적
접근은 분쟁 확대가 아닌 갈등 축소라
는 측면에서 인식을 다르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계종 법률책임전문위원으로 일했
던 것도 김 변호사 자신이 원해서다.
"법률문제뿐만 아니라 각계의 불자
전문가들이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불
교 권익 보호에 나설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합니다. 작은 힘이지만 혼신을 다
해 노력할 것입니다."

같은들 그냥 늘 경유 오히려 더 큰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 김 변호
사의 생각이다. 그렇기 때문에 법률적
접근은 진행되고 있는 갈등의 소지를
최소화하거나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방
법이라고 김 변호사는 말한다.

어떤 변호사보다도 불교 관련 문제
에 깊이 있게 접근할 수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김 변호사의 2007년이 기대
된다.(02)535-9994 한명우 기자

2월 6일 서초동에 법률사무소 열어
불자 전문가 네트워크 형성에 노력

김 변호사는 문화재, 환경,
토지 보호 등 불교계의 권익
을 위해 할 일이 많다고 말한
다. 그리고 자신이 앞장서 그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물

론 불자들과 관련한 법률적 문제도 적
극적으로 맡을 계획이다. 더 나아가서
는 불자들이 구성된 로펌(법무법인) 또
는 종합법률회사를 구성해 불교 발전
에 기여하겠다는 구상도 하고 있다.

"불교인들은 다른 종교인들과는 달
리 법률문제에 소극적이지만 법률적
접근은 분쟁 확대가 아닌 갈등 축소라
는 측면에서 인식을 다르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같은들 그냥 늘 경유 오히려 더 큰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 김 변호
사의 생각이다. 그렇기 때문에 법률적
접근은 진행되고 있는 갈등의 소지를
최소화하거나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방
법이라고 김 변호사는 말한다.

어떤 변호사보다도 불교 관련 문제
에 깊이 있게 접근할 수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김 변호사의 2007년이 기대
된다.(02)535-9994 한명우 기자

조계종복지재단, 직할자원봉사단 연수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은 1
월 9~10일 경북 봉화 청량사
에서 조계종직할자원봉사단
팀장연수를 실시했다. 조계종
신한 자원봉사단의 역량 강화
를 위해 마련된 이번 연수는
51개팀 80여 명의 팀장이 참
석한 가운데 리더십 교육, 조
계종직할봉사단 운영방안 논
의, 팀장직 인수인계 등의 프
로그램으로 진행됐다.

선교육 후득도(先教育 後得度) 제도시행 원년! 태고종 승려로 출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본교를 졸업해야 합니다



태고종립 동방불교대학 2007학년도 신입생 모집요강

한국불교의 동향을 가꾸고 배출하기 25년! 전통불교문화가 여러분의 일과 승결로 승화되는 곳, 동방불교대학이 새로운 法緣을 기다립니다.

1. 사정원칙
가. 선교육과정(승가학과)은 출가희망자(행자교육생)만 입학할 수 있다.
나. 선교육과정(승가학과)은 입학사정 시 행자소양심사를 병행한다.
다. 선교육과정(승가학과)은 종단·학교가 공히 입학사정에 입하여 인성 및 품행을 엄격 심사한다.
라. 선교육과정(승가학과)과 불교학과는 정규반과 통신반을 선택 지원할 수 있다.
마. 불교·법학·불교미술학과는 승려 및 재가불자에 한하여 입학이 가능하다.
바. 모든 학과의 신입생은 매년 학년입학을 원칙으로 한다.
2. 지원자 유의사항
가. 본교는 태고종 승려교육 전문기관으로 교육인적자원부 인가여부와 무관하다.
나. 태고종 승려로 출가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선교육과정(승가학과)에 입학해야 한다.
다. 선교육과정(승가학과) 및 불교학과 통신반은 인터넷 동영상 강의를 통해 학습한다.
라. 제출서류 및 전형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입학학을 취소한다.
마. 인터넷으로 입학원서를 접수할 경우 전형료를 소정 계좌로 입금해야 접수가 완료된다.
바. 불발 및 부정행위, 기타 부정행위로 합격 또는 입학한 자는 입학 이후라도 합격 및 입학학을 취소한다.
사. 필기·실기·면접고사에 결시한 자와 제출서류 대상자 중 서류 미제출자는 합격대상에서 제외한다.
아. 합격통보 후 정해진 기간 내에 등록하지 않은 경우 합격학을 취소한다.
자. 승적증명서를 첨부하지 않거나 종단의 목도수계를 증명할 수 없는 자는 사법여부를 불문하고 승복을 착용할 수 없다.
차. 승적증명서나 수계증 사본을 제출할 수 없는 재가불자는 나머지 서류만 제출한다.
카. 전형일에는 반드시 본인이 참석해야 한다.
타.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교 입학전형절차에 따른다.
* 본교 지원자는 다음 사항 중 한 가지 이상의 자격을 갖춰야 한다.
1. 고등학교 졸업 또는 동등이상의 학력소지자.
2. 1항의 자격이달인 경우 태고종단 건부의 추천을 받은 자.
1. 1차 전형: 서류심사
2. 2차 전형: 필기 및 실기(승가·불교·법학)
3. 3차 전형: 면접고사(인성 및 품행심사)
4. 2, 3차 전형은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함
학과 모집인원
불교학과 000명 2년제 정규반/통신반
승가학과(선교육과정) 000명 2년제 정규반/통신반
법학과 00명 2년제 정규반
불교미술학과 00명 3년제 정규반
비고
1. 불교학과/승가학과: 50,000원
2. 법학과/불교미술학과: 60,000원
1. 선교육과정(승가학과) 입학생은 재학 중 학사변동에 이상없을 경우 2학년 2학기 중 종단이 실시한 합동목도수계식에 참가할 수 있다.
2. 선교육과정(승가학과) 졸업생이 여타학과를 다시 입학해 졸업하면 아예 4학의 자격을 부여한다.
3. 선교육과정(승가학과)을 포함한 모든 학과 졸업생에게 태고종 2급 정포교사 자격증을 수여한다.
4. 출가·재가승려(법계 미품수자)로서 선교육과정(승가학과)을 제외한 여타학과 졸업생에게는 태고종 5년 법랍경력의 선법계(승가)와 수교법계(재가)를 각각 품수한다.
5. 법학과 졸업생에게는 중요명문화재 제50호 영산재보존회에서 수료증을 수여한다.
6. 불교미술학과는 각종 공모대전 및 문화재수리기술사 자격시험(국가고시) 등에 대비한 특강을 실시한다.
7. 성직유수자에게 각종 장학혜택을 부여한다.
※ 자세한 모집요강은 본교 홈페이지를 참고 하십시오
문의처: 동방불교대학 교학처
136-823 서울시 성북구 성북2동 330-586
☎ (02)745-2030~2/FAX (02)744-3461 홈페이지 www.dongbang.org